

# 국회의원 10명 중 8명 “개헌 필요하다”

### 개헌 찬성의원 중 47%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택 48%가 “내년 대선전에” 66%는 “소선거구제 개정”

#### 연합뉴스 300명 전수조사

제20대 국회의원 가운데 10명중 8~9명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9일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50명(83.3%)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진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을 화두로 던지고, 여야를 초월한 개헌추진모임이 다시 결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어느 때보다도 개헌 공론화가 적극 이뤄지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여야 모두 압도적인 다수가 개헌 지지를 표명함에 지난달 말 입법을 개시해 앞으로 4년간 활동할 제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별로 새누리당이 77.0%(126명 중 97명), 더불어민주당 86.9%(122명 중 106명), 국민당 92.1%(38명 중 35명)이 개헌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개헌을 추진할 경우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이슈가 개헌에 빨려 들어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개헌 블랙홀론’에 동조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헌을 추진할 경우 필수적으로 수반될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개헌 찬성의원중 46.8%(117명)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의원은 24.4%(61명), 의원내각제를 고른 의원은 14.0%(35명)를 각각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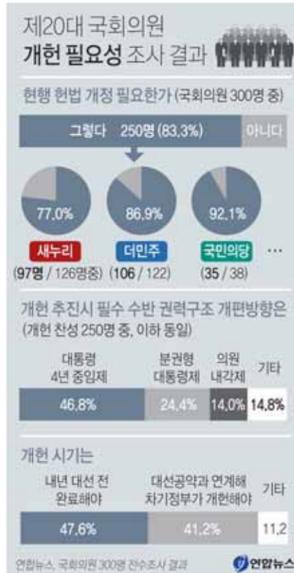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119명), ‘대선 공약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2%(103명)로 팽팽하게 맞섰다.

개헌을 할 경우 극심한 지역주의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선거구제를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개헌 찬성 의원을 기준으로 65.6%(164명), 반대 28.8%(72명), 유보 등 기타 의견을 낸 의원은 5.6%(1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이원집정부제를,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더민주에서는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설문 대상은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공약대로 4년 중임제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권과 당권 도전 여부를 고민 중인 김부겸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는 방식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다. 개헌을 포함해 87년체제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



##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수도권기업 첫 이전

### 새하정보시스템 신사옥 기공식 40억 들여 50여명 신규 고용

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수도권 기업이 최초로 이전에 기공식을 가졌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를 계기로 수도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주)새하정보시스템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서 신사옥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손금주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 박권식 한국전력 전무, 김양현 광주지방고용청장, 남성우 한전KDN(주) 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새하정보시스템은 1995년 서울에서 창립해 20여 년간 국가정보화 사업에 앞장서왔다. 특히 발전소 건설, 발송·배전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분야 국내 선두 주자로서 축적된 경험과 특화된 기술력으로 기반을 다져온 강소기업이다.

나주 혁신도시에 40억여원을 들여 50여명을 신규 고용하고, 투자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나주시 ICT 인재 양성을 위해 나주시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전남도의 최우선 가치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목포 공생원 등 12곳 나눔숲 조성

### 취약계층 이용... 25억 투입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목포 공생원 등 12개소에 심리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나눔숲이 조성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8월 녹색사업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목포 공생원과 여수 진달래 마을, 순천 인선요양원, 보성군장애인복지관, 나주 진산요양원 등 12곳에 25억원(녹색복권 기금 21억원·시군비 4억원)을 들여 나눔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눔숲 조성사업은 이용자의 신체적·육체적 안정과 휴양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또는 각 시군 유휴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말까지 주민설명회와 ‘숲 속의 전남’ 경관숲 조성 설계자 문단 의견을 수렴한 뒤 설계를 완료, 목포 공생원 등 6곳에 교목 769그루와 관목 1만1567그루를 심고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여수진달래마을 등 나머지 6곳은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이번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숲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중시장개척단 참가업체 신청하세요”

### 전남도 29일까지 모집

### 9월19일 청두·샤먼 등 방문

전남도는 오는 29일까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개척단 참가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중국시장 개척단은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청두·샤먼·광저우를 방문하는데, 참가업체는 중국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방문상담을 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식품·공산품·농식품 부문 유통·소비 거점지역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참가 대상업체는 전남에 위치한 수출중소기업으로, 자사제품에 대한 영어 카탈로그 또는 동영상 등을 가진 업체면 가능하다. 현지 바이어 발굴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현지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다. 참가 업체는 현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만 하면 된다.

이번에 파견될 시장개척단은 10개 업체 내외다.

참가 업체는 현지 시장성과 수출 능력, 바이어 발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이어 발굴, 현지 투어, 항공료 5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참가 희망 업체는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서 신청서 다운 받은 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4)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061-280-8041)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시민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지원대회 2016 시민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지원대회가 지난 18일 광주 북구 광주시민의 숲에서 열렸다. 광주시각장애인지원연합회들과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한 조를 이뤄 미각, 후각, 촉각, 청각을 느낄 수 있게 구성된 숲길을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사물인터넷 활용 주민생활과제 해결 비즈니스 창출해야”

### 광주전남연구원 ‘리더스 인포’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시대의 도래에 따라 광주·전남은 이를 활용한 재난·안전, 교통 등 주민생활과제 해결형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하는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폰 보급과 함

께 급속도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문경년 연구위원은 최근 ‘광전 리더스 인포 제9호’에 게재한 논문 ‘사물인터넷이 비즈니스에 가져오는 변화’에서 “인터넷이 정보뿐만 아니라 물건과 물건, 물건과 사람을 연결해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려는 것이 최근 트렌드로 지역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연구위원에 따르면 세계적 기업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와 시스코 시스템(Cisco Systems) 등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스템이나 장치의 수가 2020년 500억~1000억개, 2035년 1조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 연구위원은 “광주·전남 산·학·관·연은 과학·기술, 산업, 경제, 사회 등의 부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시하

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면서 “IoT·빅데이터·인공지능(AD) 등에 의한 변화는 전례 없는 속도와 임팩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 산업계가 관련 기술의 사업화와 투자를 가속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유했을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진흥원, 전파진흥원, 전파연구소 등 빛가람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업진흥기관이 협력해 IoT 활용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증-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 진료내용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염,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 · 수술후 재활 · 암케어병동 · 치매 · 중풍 · 집중치료실 · 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